한화투자증권

2026년 3월 9일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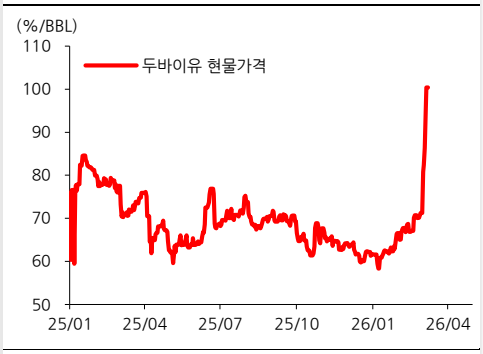
FI Comment

유가에 연동된 흐름 지속 예상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크레딧 한시화 shhan1229@hanwha.com

[주요 데이터 및 차트]

두바이유 가격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가 상승에 국고채 금리도 급등

이란 사태 영향에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급등. 금일 오전 10시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00.4달러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상회. 국고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41%(+18.5bp), 3.73%(+12.2bp) 기록 중

추가 상승 가능성, 2011년과 다르다

유가 상승 發 금리 상승은 불가피. 원유가격 상승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자극 재료. 특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은 이러한 국면에 취약. 여기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다시 반영 중. 최악의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판단

과거 유가가 100달러선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대표적인 시기는 2011~2014년. 동 시기 역시 리비아 내전 등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었던 경험. 당시 국내 소비자 물가는 2011년 초 3.4%에서 같은 해 8월 4.7%까지 상승했다가 둔화 추세로 전환. 국고채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시현. 2010년대 초 물가와 금리 상승이 일시적이었던 것은 원화가 추세적 강세를 보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2011년 1월 2.75% → 6월 3.25%)으로 대응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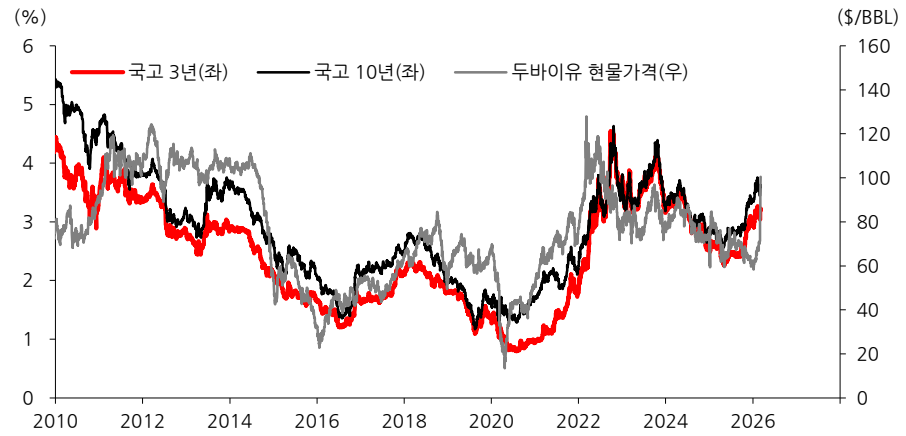
현재와 2011년을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동일하나 환율에서 차이가 존재. 달러/원 환율은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중. 즉, 15년 전 유가 상승을 환율 강세가 일정부분 상쇄했다면, 지금은 유가 상승에 환율 약세까지 더해진 상황. 유가 강세 국면의 장기화 조짐이 보일 경우 통화정책 대응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금리의 상방 압력도 과거 대비 강할 것

New Level, 사태 진정시까지 국고 10년 3.60~3.90% 전망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 크진 않지만 상황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다만, 유가와 환율 흐름, 이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을 감안, 시장금리의 이전 레벨 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상황 진정 시까지 국고 3년, 10년 금리 밴드는 3.30~3.50%, 3.60~3.90%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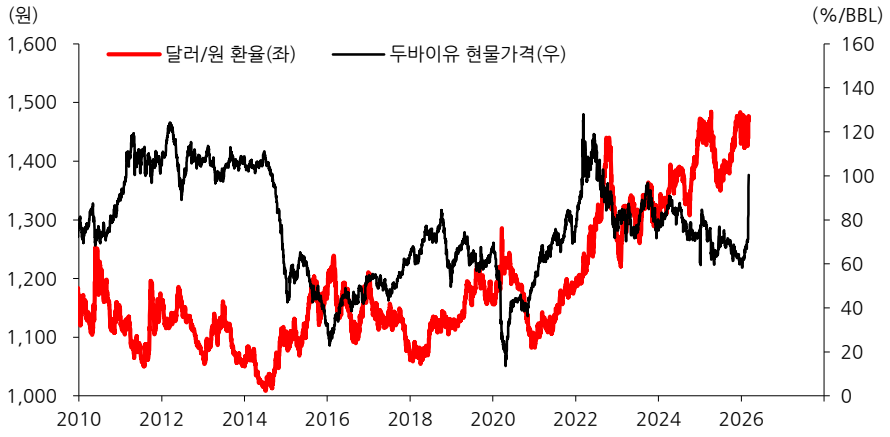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1] 국제유가 및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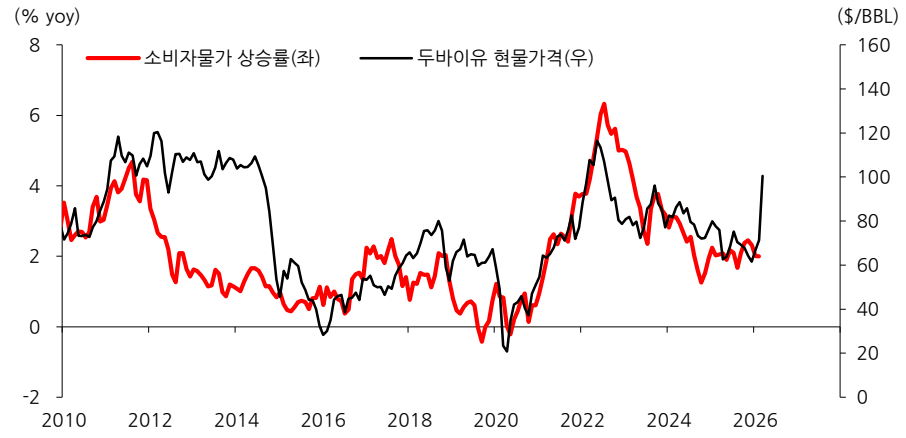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제유가 및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국제유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